



2011 K-리그 무대에 도전하는 광주 FC 선수들이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첫 훈련을 갖고 가볍게 공을 차며 몸을 풀고 있다. /나평주기자 mjna@kwangju.co.kr

K-리그 돌풍 지켜봐!

광주 FC 첫 훈련... "패기·노련미 조합 일낼 것"

내년 시즌 K-리그에서 돌풍을 꿈꾸는 광주시민프로축구단(이하 광주 FC)이 '첫 호흡'을 맞췄다. 최만희 감독이 이끄는 광주 FC가 1일 광주월드컵경기장 보조구장에서 기초체력 훈련을 갖고 몸풀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9일 선수단과 프런트 상견례를 시작으로 공식일정에 들어갔던 광주는 정식 훈련에 돌입, 2011시즌의 구체적인 틀을 그리게 됐다. 일반 무대에서 뛰고 있는 김동섭(시미즈) 등 3명의 선수가 시즌이 끝나지 않아 아직 팀에 합류하지 못한 가운데 이날 광주 선수단은 러닝 등을 하며 1시간30분가량 가볍게 몸을 풀었다. 첫 훈련을 지휘한 최만희 감독은 "무등산을 오르며 가볍게 몸을 푸는 수준으로 첫 훈련 일정을 잡았다"며 "3월 개막까지 시간이 많지 않은 만큼 앞으로 오전 피지컬 훈련, 오후 전반적인 기술훈련 등 일주일에 12번 정도 훈련을 하면서 팀을 만들어가겠다"고 훈련 계획을 언급했다. 오는 20일까지 1차 훈련을 실시하는 광주는 내년 1월7일부터 27일까지 강진으로 자리를 옮겨 훈련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선수단 구성도 강진캠프에서 완료될 전망이다. 최 감독은 "K-리그의 모든 일정이 끝난 뒤에야 FA 선수들을 영입 할 수 있기 때문에 강진캠프에서 선수단 구성을 마무리 할 수 있다. 프로 경험 있는 선수들의 합류와 함께 본격적인 포지션 경쟁이 시작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생팀의 초대 사령탑으로 빠른 시일에 팀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경쟁'이 필수적이라는 설명이다. 최 감독은 우선지명 과 신인드래프트를 통해 영입한 젊은 선수들의 패기와 K-리그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들의 노련미를 잘 조합해 시너지 효과를 얻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 감독은 젊은 선수들을 아우를 수 있는 경험 많은 골키퍼를 우선적으로 영입할 계획이다. 고향팀에서 프로 생활을 시작하게 된 김호고 출신의 이승기(23·울산대)는 "첫 시즌 좋은 성적을 내보자는 의지들도 강하고 고등학교때 함께 운동을 했던 동기들과 대학 선배를 하면서 친분을 쌓은 선수들도 많아 서툰 분위기가 좋다. 고향에서 축구를 하게 돼서 자랑스럽다. 장점이 순간 스피드와 기동력으로 팀에 감초 역할을 하고 싶다"고 첫 훈련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광주 선수단은 월드컵 경기장 훈련에 앞서 이날 오전 무등산 서석대 등반에 나서 해맞이 출정식을 갖고 안전과 선전을 기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오늘 자정 한국 월드컵개최 결정

(3일 0시 20분)

한반도 평화 명분 막판 호소 2022대회 결선 투표편 승산

한국이 2002년 월드컵에 이어 2022년 월드컵 축구 본선 개최권을 따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국제축구연맹(FIFA) 집행위원회는 2일 밤 10시(이하 한국시간) 스위스 취리히에서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본선 개최지 선정 투표를 시작했다. 2022년 월드컵 유치를 위한 한국은 공식활동은 1일 오후 11시부터 30분간 열린 프레젠테이션으로 마무리됐다. 프레젠테이션은 한승주 월드컵 유치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됐고 이흥구 전 국무총리, 한국 축구의 간판 스타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김홍식 국무총리, 한승주 위원장, 정몽준 FIFA 부회장순으로 연단에 올라 집행위원들에게 한 표를 호소했다. 특히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에서 열리는 월드컵이 동북 아시아 지역의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정 부회장과 조중연 대한축구협회 회장 등 한국 축구 수뇌부는 한국과 미국, 호주, 카타르, 일본이 나선 2022년 월드컵 유치 경쟁을 '미국 대 아시아' 구도로 보고 있다. 결선 투표에



펼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경영 자문회사 매킨지가 FIFA의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에 따르면 2018년 대회는 잉글랜드에서, 2022년 대회는 미국에서 개최될 때 가장 많은 수의 표를 올릴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매킨지가 작성한 보고서는 FIFA 집행위원회에 전달됐다. 한국은 '명분'으로 맞선다. 정 부회장은 "한국은 처음부터 월드컵 유치의 목적을 상업성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 아시아의 평화 유치가 있음을 강조해왔다. 이를 바탕으로 FIFA 집행위원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연평도 포격 사태로 한반도 평화가 현실적으로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끌어냈다"고 전했다. 2018년과 2022년 월드컵 개최지 투표에 나선 집행위원의 수는 22명으로 최종 확정됐다. FIFA 집행위원회는 24명으로 구성됐지만 뇌물 수수와 연관돼 자격 정지를 당한 아모스 아다나(나이지리아), 레이날드 테마리(타히티) 집행위원이 투표에 참가하지 못한다. 오세아니아축구연맹은 테마리 위원을 대신해 투표권 행사를 주장했지만 이뤄지지 못했다. FIFA는 지난달 30일 BBB가 제기한 뇌물 의혹에 연루된 3명의 집행위원에 대해서는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못박았다. 한국의 월드컵 개최 여부는 3일 오전 0시 20분에 결정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연합뉴스

女축구 간판 지소연 日무대 뒀다

고베 구단 입단 확정

한국 여자축구 차세대 간판 지소연(19·한양여대·사진)이 일본 여자프로축구에 진출한다. 지소연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는 1일 "지소연이 일본 여자축구 1부리그의 아이나 고베 구단과 입단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올댓스포츠는 "지소연과 해외 리그 진출과 관련해 계속 논의한 결과, 미국 리그의 상황이 불안정해 다른 해외 리그 진출을 추진했다. 그동안 지소연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인 일본의 아이나 고베에 입단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소연은 그동안 미국 프로무대 진출을 1순위로 타진해 왔지만 최근 팀이 잇달아 해체되는 등 불안한 기색을 보이자 결심 끝에



일본행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국내 실업팀 입단을 위한 2011시즌 신인드래프트에도 참가하지 않은 지소연은 결국 일본 고베의 구애를 받고 진로를 급선회했다. 재일교포가 구단주인 고베는 2006년 이진화(대교), 2007년 정미정(서울시청)이 뛰었던 팀으로 올 시즌 1부리그에서 4위에 올랐다. 지난달에는 지소연과 함께 20세 이하 대표팀 공격수로 활약한 권은솜(울산과학대)도 영입했다. 지소연과 고베의 계약 기간은 2년이며, 1년 뒤 양측이 계약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옵션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ShinYang Park Hotel
Dinner Show 해바라기
2010. 12. 16(목) 19:00 신양파크호텔 1층 그랜드 볼룸
₩150,000원(VAT포함) ※ 15세 미만은 입장이 불가능 합니다.
1주치및주관 (주)대양인투스 신양파크호텔 예약및문의 T.062) 228-4711~2

Very Christmas
Christmas family buffet
 ▲ 12월 24일 | 18:00-21:00
 ▲ 12월 25일 | 12:00-15:00
 대인 | 30000 (VAT포함)
 소인 | 20000

♥신축건물에
우아하고 품격있는 객실!
♥각종 이벤트 행사
장소로도 적합!

1객실 1주차
도심속 정통무인텔!

무인텔
필

☎ 062) 523-7789
 광주광역시 북구 유동 105-1번지
현대백화점 옆 LG전자 뒷편
 인터넷주소 : www.feelmotel.kr

테마룸 → 썬 뉴베드 두바이 산토리니 씨클 재부라 플라워 피스 원기둥 네이처
 NAVER 검색창에 **무인텔 필** 을 쳐보세요!